

이번 주 줄줄이 열리는 '조국 일가' 재판

오늘 조국 동생 첫 공판...5촌 조카 이틀 연속 재판

수요일에 정경심 교수 첫 공판기일...법정 출석 관심

민족 명절인 설을 앞둔 이번 주 법원은 줄줄이 열리는 '조국 일가' 재판으로 바쁜 한 주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 재판이 열리는 데 이어 수요일까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이어진다.

◇20일 조국 동생 첫 공판...5촌 조카는 이틀 연속

20일에는 '운동학원 채용비리' 셀프 소송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일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열리는 첫 공판기일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 동생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과 21일 오전 10시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는 뇌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서중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22일 수요일에는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경심 교수 첫 공판 22일 열려...조국은 설 끝난 29일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와 자신이 직접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2월19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성을 내며 재판부를 향해 집단반발을 의식했는지,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열리는 첫 공판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한 것은 차일피일 미루지는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를 최대한 신속하고 차분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 공판기일은 공개 가능성이 크다.

이날 열리는 첫 공판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한 것은 차일피일 미루지는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를 최대한 신속하고 차분하게 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 공판기일은 공개 가능성이 크다.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



'운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1개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설이 끝난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17일 오전 나고야소송지원회와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500번째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 디미쓰비시 만났다

2018년 대법원 판결 후 원고와 첫 만남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원고 당사자로는 최초로 피고 기업인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만났다.

양금덕 할머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은 17일 오전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본사를 찾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양금덕 할머니, 다카하시 나고야소송지원회 대표, 이국인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대표, 정경희 자문위원(통역)은 이날 미쓰비시 측의 요청으로 본사 6층 회의실을 방문, 요청서를 미쓰비시 측에 직접 전달하고 30분가량 면담했다.

나고야소송지원회 등은 요청서를 통해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히로시마 징용공 피해자 원고들의 존엄 회복을 위해 원고 측과 협의할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만남은 원고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피고 기업을 직접 만났다는데 의미가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또 다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조속한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원고 측의 요청서 접수에 아예 거부했다.

미쓰비시 측도 2019년 두차례 요청서를 전달 받았지만 일본 지원단체를 통해 건네 받은 것으로 이번처럼 원고 당사자와 피고 기업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이날 병상에서 투병 중인 김성주, 이동연, 박애옥 원고 할머니들의 사진을 들고 회의실을 방문해 "맞아 가며 일한 죄밖에 없다. 왜 눈물로 살게 하느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 빨리 배상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근로정신대시민모임 등은 미쓰비시 본사 방문 전 일본 외무성 앞에서 일본 시민들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전단지 배포 후 외무성과 일본정부에 요청서를 전달했다.

아베총리와 외무성에 전하는 요청서는 외무성이 직접 수령을 거부해 우편 발송으로 이뤄졌다.

'5·18 관련 가능성' 유골 발견 옛 광주교도소 인근 추가 발굴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2800㎡ 텃밭

5·18단체와 광주시가 '5·18 행방불명자' 가능성이 있는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내 무연고 합장묘 인근 텃밭 추가 발굴한다.

1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단체와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무연고 합장묘 인근 텃밭 2800여㎡를 대상으로 유골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

5월 단체(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지난달 19일 신원 미상의 유골 40여구가 발견되자 발굴 현장 인근에도 다른 유골이 묻혀있을 가능성을 감안 최근 광주시에 발굴 조사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도로 개설 공사를 중단, 5일간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대한문화재연구원에 발굴을 의뢰했으며, 5월 단체 대표들과 광주시 관계자가 참관한다.

"韓 실종자 수색 난항...폭설 탓 접근 못해"

네팔 매체 "헬기 투입했지만 착륙 실패...눈 녹아야 구조 가능할 듯"



히말라야산맥 안나푸르나에서 지난 17일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카트만두포스트·히말라야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전날

까지 구조헬기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이들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지역에 눈이 많이 쌓인 탓에 구조헬기가 현장에 착륙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당국은 "실종자들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면서 "눈이 녹기 전까지 구조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고는 17일 오전 안나푸르나 베이 스킵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 해발 323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하산하던 충남교육청 해외 교육봉사단 교사 4명과 네팔인 가이드 2명이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다.

한국인 실종자 4명은 모두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들로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뒤따르던 다른 교사 5명과 가이드 1명은 현장에서 무사히 피신했다.

현지 구조대는 데우랄리 루지(선장)에 머물면서 매일 사고 현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안나푸르나 마당에서 쓰러지로 향하던 중국인 여행객 4명도 연락이 끊겨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네팔 당국은 전날부터 헬기 3대를 동원,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 고립됐던 여행객과 네팔인 가이드 등 100여명을 구조했다.

현지 경찰은 "기상 상태가 약간 좋아지면서 많이 묶인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자회사) 신원자원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 061)333-6832 FAX : 061)334-7701